

# 세대 잇는 하모니, 빛고을서 울리는 평화 메시지

광주시립합창단 호국보훈의 달 기념음악회 '기억과 희망'...오는 27일

6월, 순국선열의 희생을 품은 무대가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특별기획연주회 '기억과 희망'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6월8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6·25전쟁, 6·29 제2연평해전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호국보훈의 시간을 음악으로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다. 무대에는 광주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학생들, 오케스트라 카메

라타전남이 함께하며 피아니스트 박은식, 바리톤 공병우, 소프라노 김지나가 협연자로 나선다. 공연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으로 막을 올린다. 프랑스 작곡가 포레는 이 작품에서 죽음을 두려움보다 평온한 해방으로 바라보며, 기존 진

## '레퀴엠'부터 창작 한국합창곡까지 숭고한 희생 추모, 자유·평화 기억

혼곡과는 다른 미학적 감수성을 제시했다. 고요하고 위안에 찬 선율로 마무리되는 이 곡은 음악을 통해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어지는 베토벤의 '합창 환상곡'은 피아노 독주와 오케스트라, 합창이 결합된 실험적 구조의 작품이다. 베토벤의 이상주의와 음악적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곡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조화로 웅장한 감동을 자아낸다.

후반부에는 한국적인 정서와 시대적 메시지를 담은 창작 합창곡들이 이어진다.

박지훈 작곡의 '다시 피는 꽃'은 절망의 끝에 서도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의지를 섬세한 화성으로 풀어내며, 상처를 견디고 회복하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이어지는 안익태의 '내 나라 내 겨레'는 민족과 조국을 향한 자긍심을 장중한 선율에 담아내며, 공동체를 향한 굳건한 연대를

일깨운다.

이날 마지막 무대로 선보이는 '아리랑'은 한국인의 삶과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대표 민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다채로운 지역적 전승을 바탕으로 한 합창 편곡은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음악으로 되새기며 공연의 정점을 이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예술을 통한 시대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지역의 역사성과 예술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시민과 함께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꿈꾸는 무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 티켓은 전석 1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은 7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1.광주시립합창단 2.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3.임창은 상임지휘자



3.

## 제3회 김현승 시문학상에 이근배 시인 선정

광주예총, 오늘 남구문화회관서 시상식

다형 김현승의 문학정신과 예술성을 기리는 '제3회 김현승 시문학상'에 이근배(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와 다형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3회 김현승 시문학제·시상식'이 17일 오후 3시 남구문화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제3회 '김현승 시문학상' 수상자로 확정



된 이 시인은 오랜 세월 시조라는 정형시 틀 안에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창작과 실천을 통해 한국문학의 뿌리를 다져왔다. 그의 수상작 '벼루를 닦으며'는 벼루라는 전통적 도구에 축적된 시간과 역사, 창작 정신을 입체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 시인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3천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신인예술상 시상도 이뤄진다.

이번 신인예술상에는 광주예총 소속 광주전남건축가회 정영범, 광주문인협회 김수하, 광주국악협회 함승우, 광주미술협회 윤성민, 광주무용협회 노윤정, 광주사진작가협회 황진영, 광주연극협회 이슬, 광주음악협회 나유빈, 광주연예인협회 위명선이 선정됐다.

건축 최정미, 문학 고현경, 국악 김주영, 미술 김나영, 무용 강은혜, 사진 최정우, 연극 정성현, 음악 유준승, 연예 한진희 등 비회원 수상자도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최명진 기자

## 김신운주 작가와 함께하는 'GB 작가탐방'

광주비엔날레, 내일 뽕뽕브릿지서

(재)광주비엔날레가 오는 18일 오후 4시 서구 뽕뽕브릿지에서 김신운주 작가와 함께 네 번째 'GB 작가탐방'을 개최한다.

'GB 작가탐방'은 2018년부터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예술 세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정의, 탈성장,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등 동시대 사회 이슈를 예술로 풀어내며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에 둔 작업을 지속해온 김신운주 작가와의 만남으로 진행된다. 뉴욕과 광주를 오가며 활동 중인 작가는 최근 생태적 전환과 생명 감수성에 주목하며 작업의 지평을 확장해가고 있다.

대표 프로젝트 '원 하트 프로젝트(One Heart Project)'는 참여자 각자의 마음을 담은 천 조각을 하나로 이어 붙여 커다란 조각보를 완성하고, 이를 기념비 형태로 설치하는 공공예술



'One Heart' 공명 기념비

작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타인의 조각과 연결되며 공동체적 예술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작가는 해당 작업으로 2024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 2022년 통영국제트리엔날레,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선 예술 공간 프라이머리 프로젝트의 김성우 큐레이터가 모데레이터로 참여해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최명진 기자

## 예술가·창작자 위한 뉴미디어 '배움의 장' 열린다

내달 11-13일 '오픈런 ACC'

뉴미디어 기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한 배움의 장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음달 11-13일 문화창조원 창작자 스튜디오에서 '오픈런

(OpenLearn) ACC'를 개최한다. ACC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교육 행사 '오픈런(Open Learn) ACC'는 예술 창작의 가능성 확장 및 창작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교육 기간 동안 인공지능(AI), 영상·이미지,

제작·설치 등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여 종의 강연, 워크숍,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예술가들이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동시대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경험하고,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행사는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력해 완성도를 높인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b>시내 지역</b>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b>지방 지사</b>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원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신지사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